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금의환향(錦衣還鄉)의 예수님은 없습니다

금의환향(錦衣還鄉), 출세하여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금의환향(錦衣還鄉)의 기회를 가지십니다.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온 유다 지방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고향 나자렛에도 금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다다랐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열광한 군중들과 달리 고향 나자렛 사람들은 가르침에 놀라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소문으로 들려온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금의환향(錦衣還鄉)이어야 할텐데, 고향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수님을 향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는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딱히 놀랍거나 당황스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치유와 기적 앞에서, 헤로데 당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었고, 친척들은 예수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했으며, 일반 군중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사람들의 배척이 마음 아프지만, 이미 예수님께는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불이해와 배척이 예수님께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중요한 일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고향으로 향했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일에 충실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자렛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평범했던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던,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었던 한 청년이 이제는 가난한 이들, 병들고 지친 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언자로 칭송받을 때, 자신들이 가진 선입견과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고향 나자렛 사람들은 아무런 기적의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맙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과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인간의 기준에 맞추어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계를 가진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무한하신 하느님을 담으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과 이웃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이웃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식, 기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잃고 제 자리걸음을 할 뿐입니다.

나자렛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일상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유에서, 십자가에서, 감실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며,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더욱 충실히 십자가와 감실 앞에 머물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베푸실 기적과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상주 가르멜 여자수도원 김재형 베드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적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고정관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지혜와 겸손을 청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440번 ‘주님의 발자국 아는가’

본기도

†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수난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 2장 2절-5절

안 내 :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묵 상 :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고 완고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자비로 우리의 눈에 너울을 걷어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화 답 송 :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제2독서 : 코린토 2서 12장 7절-10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힘이 자신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의 약점을 자랑할 것임을 전합니다.

묵 상 :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삶의 뿌리를 흔들리게 하는 약점과 단점은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자신의 약점을 주님의 선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6장 1절-6절

강 론 : ‘금의환향(錦衣還鄉)의 예수님은 없습니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 153번 ‘오소서 주 예수여’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이 주시는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기도를 통해 알게 되고
이는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침묵>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님의 햇살을 담은 사랑으로
세상의 양식이 되어 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체와 성혈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매순간
주님의 부르심이 성체성사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유병일 신부 ‘햇살담은 영혼’의 내용 중에서 발췌-

공지사항

파견성가 :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 공소사목 성금

상주가르멜수녀원 100,000원

박광호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89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교구내 사제 성폭력 피해 접수처 정정

- 전화번호 : 054-856-3117
- 전자우편 : adcd3117@naver.com
- 담당 : 사무처장 신부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예언서)

- 안동 - 7월 14일
교구청 (토요일 13:30-17:00)
- 함창 - 7월 9일, 16일
함창 본당 소성당 (일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회비 : 1인 40,000원(교재비 포함)

■ 제23회 농민주일 기념 특강

- 제목 :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GMO 상용화와 농업 밥상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북부지구 7월 13일(금) 19:30 휴천동 성당
- 강사 : 김은진 교수(원광대)

■ 제23회 농민주일 기념 축제

- 일시 : 7월 15일(주일) 10:00~16:00
- 장소 : 구담성당, 쌍호분회 일대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아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꾸르실료 월레미사

- 일시 : 7월 16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사별성당 새성전 봉헌미사

- 일시 : 7월 25일(수) 17:00
- 주소 : 상주시 사별면 덕담1길 90
- 신부님 준비물 : 장백의와 백색 영대

■ 여성 제40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8월9일(목) 14~8월12일 17시 [3박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0,000원
- 접수마감 : 7월 13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후 3년 이상, 견진성사 받은 분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선택 주말이 다음과 같이 연기 되었습니다.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제86차 안동ME주말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8월 12일까지
- 신청자격 : 혼인한지 5년 이상 부부, 비신자, 사제, 수도자, 타종교인 가능
- 문의 및 신청
김좌중(M.콜베) 010-6580-8408
천연화(베로니카) 010-6500-8408

■ 제17회 초록빛 교실(가족 캠프)

- 일시 : 8월 4일(토)14:00~5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개인/단체
- 참가비 : 1인 2만원(3식 및 간식 포함)
- 신청 : 교구 사목국(054-858-3114~5)
선착순 100명

■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썩 미숫가루 가격 : 1kg 15,000원
(청정지역 썩과 유기농 곡물 미숫가루)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단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꽃동네 젊은이 성령 피정

- 일시 : 8월3일(금)13:00 ~ 5일(주일) 16:00
-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치유미사 : 꽃동네 오웅진 사도요한 신부
- 대상 :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젊은이
- 회비 : 30,000원
- 문의 : 010-5490-5345

■ 제1회 청년 순교자 축제 TYM

- 일시 : 8월 31일(금) 17:00부터
9월 2일(주일) 14:00까지
- 장소 : 나바위-개갑장터
- 접수 : 7월 1일~7월 31일
- 회비 : 5만원
- 신청 및 문의 : 010-4677-4702
- 복자수도회 www.brotherhood.or.kr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8장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291. 시노드 교부들은,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혼인 유대를 깨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교회의 많은 자녀들의 나약함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모든 이를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로, “불완전한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이들이 선행을 하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자신이 생활하고 일하는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의 삶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또한 자비에 전념하는 이 희년의 맥락에서 이러한 태도는 확고해 집니다. 교회는 늘 완성을 목적으로 삼고 하느님에 대한 더욱 온전한 응답을 사람들에게 촉구하지만,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길을 밝혀 주는 횃불이나 폭풍우 속에 놓인 이들에게 빛을 비춰 주는 등대의 불빛이 되어, 사랑에 상처받고 길 잃은 가장 약한 하느님의 자녀들을 관심을 기울여 배려하며 동행하여 그들의 신뢰와 희망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종종 야전 병원의 사명과 비슷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92. 그리스도교 혼인은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일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배타적 사랑과 자발적 신의로 자신을 서로에게 내주며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생명의 전달에 열려 있으며 성사로 거룩해 집니다. 성사를 통하여 이들은 가정 교회가 되고 사회를 위한 새 생명의 누룩이 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다른 형태의 결합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교 이상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이상을 비슷하게 실천합니다. 시노드 교부들은 혼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아직 부합하지 않거나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건설적인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목의 점진성

293. 교부들은 순전한 사회혼이나, 적절한 구별이 필요한 단순한 동거의 구체적인 상황도 살펴보며, “그러한 결합이 공적인 유대를 통하여 매우 안정되고, 깊은 애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과 시련을 극복하는 힘을 보여 주면 혼인성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오늘날 많은 젊은 이들이 혼인의 불신하고, 함께 살면서도 혼인 서약을 몬 훗날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이미 한 서약을 깨고 바로 새로운 서약을 맺습니다. “교회에 속한 이러한 신자들에게는 너그럽고 용기를 주는 사목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그리스도인 혼인의 증진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사목적 식별”의 책임도 있습니다. “혼인에 관한 복음을 온전하게 더욱 잘 받아들이도록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을 그들의 삶 안에서 찾아내려면 그들과 사목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목적 식별에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장과 복음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294. “사회혼을 선택하거나 여러경우에 단순히 동거를 선택하는 것은 흔히 성사적 결합에 대한 선입견 또는 거부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이거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모로 하느님의 고유한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의 표징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동거한 다음에 교회의 혼인성사를 요청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제도화 확고한 혼인 서약을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단순히 동거를 선택하지만, 삶의 안정(일자리와 고정 수입)을 이룰 때까지 동거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실혼’이 매우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정과 혼인의 가치를 거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히 사회적 조건들 때문에 혼인을 사치로 여기어 물질적 빈곤 때문에 ‘사실혼’의 상태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한 상황들을 복음에 비추어 충만한 혼인과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분별 있게 이러한 상황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사랑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바람에 답을 하시며 그 여인이 삶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시고 그 여인을 복음의 온전한 기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295.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인간은 성장 단계에 따라 도덕적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하며 성취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일명 “점진성의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법의 점진성”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객관적 요구를 이해하거나 인정하거나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이들이 자유로운 행동을 신중하게 실천하는 차원의 점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법은 길을 보여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 곧 예외없이 모든 이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와 인간의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관련된 하느님의 확고한 절대적인 사랑이 요구하는 것의 점진적인 통합을 통하여 한걸음씩 나아가지만, 은총의 힘으로 이 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계속 -



영혼의 마사지

신효원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잘 웃는 사람이 좋다. 아니 잘 웃는 사람만 좋다. 그의 밝은 미소는 내 마음까지 맑고 평화롭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소중한다는 생각이 더해진다. 공사장에서 웃음에 대해 강조를 하고 나도 많이 웃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늘 환한 표정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영 난감한 일이 있었다. 어디 사진을 보낼 일이 있어 사진관에 가서 미소가 득한 얼굴로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사진사가 열 판쯤 찍을 테니 맘에 드는 걸 고르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김치 위스키를 외쳐댔는데 그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손님은 웃는 게 안 되네요.” 화면을 돌려보니 거기에는 웃음에 영 익숙하지 못한 딱딱한 얼굴이 이어져 나왔다. 내가 봐도 밥맛이 없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그날부터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했다. 웃음에 관한 책도 몇 권 읽었다. 웃음의 효능과 필요성, 잘 웃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웃음에 관한 명언들이 가장 와 닿았다. 아마 오랜 세월 고뇌의 결과일 것이고 많은 이들의 공감이 녹아든 말들이기 때문이리라. 그 중 몇 개를 간추려 본다.

‘웃음은 내면세계의 깊숙한 마사지다.’ 늘 외로웠던 그는 어느 날 당신의 미소로 깊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아마 영혼까지 편안해졌으리.

‘웃음은 영원으로의 산책이다.’ 천국은 그리 먼 곳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당신의 미소로부터 시작된다.

‘미소는 세계 공통의 여권이다.’ 외국어를 몰라도 수십여 나라 배낭여행이 가능한 심비가 거기 있다. 미소는 말보다 더 심금을 건드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웃는 곳과 웃지 않는 곳의 차이다.’ 그러니 천국보다 더 가기 쉬운 곳이 없다. 그런데 그대 왜 아직 거기 있는가.

‘웃지 않고 보낸 날은 잃어버린 날이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은 웃음이 없었던 시간들이다. 나의 고집스런 얼굴이 당신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을까.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워진다.’ 그래서 웃음은 결심이요. 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는가.

‘웃음은 세상에 대한 나의 경쟁력이다.’ 외롭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 조용히 거울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여유하고는 살아도 꿈하고는 못 산다더라.

‘돼지머리도 웃는 놈이 값나간다.’ 하물며 사람임에랴. 웃음은 인간만의 특권이다.

백여 년 전 미국에서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가 파견되었다. 원주민들이 털이 덩수룩해서 짐승과 쉽게 구별할 수가 없었다. 본국에 손쉬운 구별 방법을 요청했더니 즉시 전문이 도착했다. ‘웃는 것은 인간이고 웃지 않는 것은 짐승이다.’

웃음의 반대말은 울음이 아니다. 무관심이고 거부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그속이 바라보며 얼굴 가득히 오래 미소를 짓는다면 당신은 분명 좋은 사람이다. 언제나 정겨운 미소와 다정한 말이 준비되어 있으면 당신은 삶의 소중한 비밀 하나를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잘 웃지를 못한다. 마음과는 달리 무심하고 멀뚱한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기 일쑤다. 그럴 때마다 어느 세일즈맨의 얘기를 자주 떠올린다. 그는 일이 많아 날마다 밤늦게 귀가를 했다. 종일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지친 상태지만 항상 현관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자세를 가다듬으며 이렇게 자신을 추슬렀다. “나는 지금 오늘의 내 마지막 고객을 만나려고 한다.”